

인터뷰 김정전 인쇄마을 지정 비상대책위원장(대화특수인쇄공사 대표)



## “대한민국의 인쇄중심은 서울시 중구” “굳게 단합하면 인쇄마을 조성 가능”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서울시 중구 지역은 우리나라 인쇄의 중심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으로 인해 인쇄의 중심인 중구 지역의 인쇄타운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쇄인 모두가 단합하여 조속히 ‘인쇄마을’ 조성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쇄의 위상이 곤두박질 할 것입니다”

인쇄마을 조성을 위해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정전 인쇄마을 지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대화특수인쇄공사 대표)은 “인쇄문화산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그 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지식산업을 융성하게 하는 일”이라며 인쇄의 발상지인 서울 중구 지역에 인쇄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 인쇄업체를 방문하여 인쇄마을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을 만나 인쇄마을 추진 배경과 전망을 들어 보았다.

### 1만 명 서명운동 전개

- ‘인쇄마을 지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촉 배경과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잘 아시다시피 서울 중구 지역은 인쇄의 메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현재 인쇄사의 밀집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라면 이곳의 인쇄업체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의 인쇄업체들은 70% 정도가 자가 공장이 없는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이 이사장에 출마하면서 인쇄마을 추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현재 조합의 조정분과위원장이기도 하구요. 그런 연유로 ‘인쇄마을 지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정석 이사장님도 인쇄마을 조성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 최근 인쇄인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현재 5천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요원을 투입하기도 하고 각종 행사에서 서명을 받기도 했으며, 우편 발송을 통한 안내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지역 인쇄업체들을 직접 방문하여 400여명으로 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뜻을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명에 소극적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들이 뜻을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일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중구 지역 인쇄, 나아가 우리나라 인쇄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서명운동은 언제까지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 대략 2월 중 끝낼 계획입니다. 2월에 각 단체의 총회가 있으니까 그 곳에서 홍보도 하고 서명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 조합과 협의하여 3월 중엔 관계기관에 서명명부와 우리의 의지가 담긴 문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1. 인쇄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접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서울시도시균형발전위원장도 만나보고 서울시와 중구청 관계자들도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력한 의지(서명 명부 등)가 담긴 뜻이 문서로 전달되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쇄는 문화이고 산업이며, 지식산업의 원천 아닙니까. 그러한 인쇄의 메카가 중구 지역인데 재개발과 관련된 기관이나 담당자들은 인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집된 모습으로 요구하고 청원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한옥마을 같은 인쇄집성촌 바람직

1. 인쇄마을이 조성될 경우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인쇄의 발상지입니다. 극동빌딩 앞에 주자소 터라는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직지'가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이기는 하나 원본이 프랑스에 있고 청주의 흥덕사라는 절에서 만들어진 불경이기 때문에 중구의 주자소에서 만들어진 활자본이 일반적으로 활용된 활자본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주자소가 1403년에 세워졌으니까 중구의 인쇄역사가 600년이 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배경은 인쇄가 정치·행정·경제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쇄를 도심형산업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이 된다 해도 이 지역에 인쇄타운은 존재해야 합니다. 현재 필동에 한옥마을이 있지요. 이 한옥마을이 인쇄마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프리프레스-인쇄-제책이 한곳에서 이루어지고 라벨 등 특수인쇄물이 함께 생산되면서 관광코스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의료-육아 등 복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인쇄타운이 되어야 합니다.

1. 인쇄마을을 조성하려면 토지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텐데요.

»»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건폐율을 조정해 재개발을 원활히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결하고 의지를 보인다면 토지문제 때문에 인쇄마을 조성이 불가능해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쇄문화 산업진흥법에도 인쇄단지 조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단결된 모습이 중요합니다.

1. 중구 지역의 인쇄업체들이 영세해서 인쇄마을이 조성된다고 해도 입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 안타깝게도 중구 지역의 인쇄업체들이 영세합니다. 전국 1만7천여 업체 중 서울에 60%가 있고 그중 중구에 60%가 밀집돼 있습니다. 땅은 좁고 업체는 많다 보니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면 반드시 인쇄마을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영세업체들을 위해서입니다. 자본력이 있는 업체들은 이미 외곽에 공장을 마련했거나 앞으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체들은 갈 곳도 없고 자본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인



본지 유창준 국장과 인터뷰하고 있는  
김정전(왼쪽) 위원장

쇄마을을 조성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하여 인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인쇄마을 조성의 목적입니다.

### 여예무훼를 좌우명으로

- 서울조합 조정분과위원장, 라벨협회 회장, 중구 상공회부회장, 인쇄마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향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행보 때문에 일부에서 인쇄단체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 사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올해로 창업 33년이 됩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인쇄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뜻이 없습니다. 여예무훼(與譽無毀)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합니다. 제 좌우명이기도 하구요. 칭찬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비난받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늘 이 글귀를 새기며,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쇄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 주시지요.

» 최근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도요타 사태는 한마디로 '다품종 대량생산'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산체제는 품질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쇄는 지식산업의 근간이고 첨단문화산업입니다. 따라서 대량 생산만을 추구하고 품질관리는 뒷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쇄마을 조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인쇄 집성촌을 형성하게 되면 유기적인 기술흐름을 통해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영세성을 탈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창준 국장·박성권 기자